

## 7. 27 이 전하는 사랑의 전설

조선에서의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치절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가 우려하던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전략전술이 낳은 승리인 동시에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승리였다.

### 영웅적위훈의 원동력

주체 40 (1951) 년 9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휘관들에게 1211 고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군인들이 먹고 입고 휴식하는 문제로부터 전투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전화로 이곳 지휘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원들은 모두가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사들에게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 그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은 1211 고지의 전사들이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거듭되는 악랄한 공격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사수할 수 있게 한 영웅적위훈의 원동력이였다.